



‘천사섬’ 신안 2004만송이 애기동백 ‘활짝’



11일부터 분재공원에서 ‘겨울꽃 랜선 축제’... 탐방객 위한 포토존도
저녁노을미술관에선 내년 2월 27일까지 ‘애기동백꽃 회화전’

신안 입해읍 천사섬분재공원에서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1일부터 52일 동안 송공산 남쪽 기슭의 천사섬분재공원에서 ‘섬 겨울꽃 랜선 축제’를 연다.

겨울꽃 랜선 축제에서는 분재공원에 애기동백길 3km에 걸쳐 흰색과 분홍색, 빨강색을 뽐내는 애기동백꽃 2004만 송이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신안군은 섬 겨울꽃 홈페이지(www.섬겨울꽃애기동백축제.com)를 통해 애기동백꽃과 애기동백 회화전을 방송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4월 문을 연 천사섬분재공원은 한 해 100만명 이상 다녀가는 명소다. 지난해 축제기간에만 관람객 10만여명이 다녀갔다.

신안군은 관광 불모지였던 입해도에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송공산 남쪽 기슭 황무지 13ha(4만여평)에 돌, 나무, 분재, 꽃을 주제로 한 분재테마공원을 일궈냈다.

이 곳에는 여러 독지가들이 다양한 분재와 나무를 기증, 전시돼 있다. 특히 최병철 박사가 평생 가꾼 명품 분재 500여점, 분재소재 8000여점, 서적 300여점을 기증해 관광명소의 기틀을 다졌다.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천사섬분재공원은 분재원과 야생화원, 수목원, 조화원, 산림욕장, 온실, 애기동백 군락지 등으로 구성됐다.

분재원과 온실에는 금송·해송·소사·철쭉·주목·향나무 등 1500여점의 다양한 명품 분재와 아프리카 석조문화의 진수인 소나조각 100여점을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자극한다.

인근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내년 2월7일까지 ‘애기동백꽃 회화전’이 열린다. 강종렬·박용규·화백 등 13명의 작품 43점을 만날 수 있다.

신안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체험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랜선축제로 대체했으나, 직접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애기동백길을 탐방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신안군은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발열 체크와 방역을 실시하고, 환권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1004섬을 찾는 방문객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애기동백숲을 ‘2020년에 꼭 가봐야 할 블루 이코노미 명품숲’으로 선정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e@kwangju.co.kr



신안군 입해읍 천사섬분재공원에서 국내 유일의 ‘겨울꽃 축제’인 ‘섬 겨울꽃 랜선 축제’가 11일부터 52일간 열린다. 또 분재공원 인근 저녁노을미술관에서 내년 2월7일까지 ‘애기동백꽃 회화전’을 만날 수 있다. <신안군 제공>



영암 이기열씨 ‘한방배’ 과일산업대전 최우수상

영암 도포면 이기열 농가에서 재배한 한방배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선정됐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이기열 배 명인이 ‘장조’ 품종으로 신품종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기열 씨는 계피, 당귀, 감초 추출액 등을 가미한 한방배비를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친환경 과원 관리와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열 한방배’라는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2012년 대한민국 스타팜(Star Farm)으로 선정됐던 이씨는 ‘영암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 배 재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 매출 100억 돌파

공무원 직접 운영 수수료율 낮춰... 온라인 마케팅 강화 전략 주효

해남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사상 첫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해남군은 ‘해남미소’ 매출이 11월 말 기준 100억 5000만원으로 직영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53억원을 뛰어넘어 1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12월에는 주력상품인 절임배추 판매가 대폭 증가하는 만큼 올해 목표액 1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매출액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미소의 매출 100억원 달성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다. 직영으로 전환한 지 9년만에 지자체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탁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비해 해남군은 해남미소 전담팀을 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해온 점이 특징이다.

공무원 운영을 통해 절감된 위탁 운영 비용은 입점 수수료율을 낮추는데 활용, 농어가 이익을 최대화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해남미소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 등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농어를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율을 6%에서 4%까지 낮췄다.

반면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온점이 주효했다.

모바일 구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지조차지단체 최초로 카카오커머스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해 판로를 확대했다.

카카오톡 스토어, 육선, G마켓, K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젊은층의 관심까지 이끌어내며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해남미소는 100억원 달성을 기념해 7일부터 18일까지 감사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입점 농수특산물에 대한 할인행사와 함께 구매고객 중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준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치매 예방 효과’ 완도산 톳 국제연구개발 박차

군,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제품 개발

완도군이 치매 예방과 발병 지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톳의 효능에 대해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7일 해조류를 활용한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인 ‘유레카(EUREKA)’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레카는 유럽을 중심으로 4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 협의체다.

완도군은 기술 파트너인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해양바이오에 대한 연구·신기술 획득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김광훈 공주대 교수는 “치매에 대한 톳의 효능이 동물 실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됐다”며 “톳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해 치매 예방과 초기 환자의 발병 지연을 위한 식이보충제와 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은 프랑스 최대 해양바이오 연구소인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해 해조류 기능성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업화 소재를 해양바이오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10월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의 공동 참여와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기술 및 기업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산학연과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가 참여한 공동연구체를 구성했고 세가지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연구과제는 완도산 톳 추출물을 활용한 치매 예방 상용화 연구와 치매 예방 의약품 개발·갈조류 기반 천연물 동물 사료 개발이다. 최종 연구 과제에 선정되면 3년간 15억원 이내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야간 조명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주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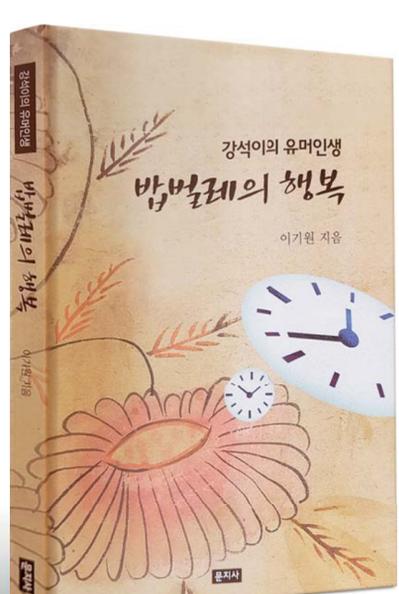
〈사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전시관과 주변 산책로에 조명을 설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영광군은 앞으로 백수해안도로에 경관조명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중훈 기자 jylee@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